사순 제 4주일 강론(2019년 3월 31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오늘 복음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사순 시기에 가장 어울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회개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느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느님이시고, 항상 자비로우시며,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찾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항상 반기시는 분이시죠. 이런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아주 적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돌아온 작은 아들과 큰 아들, 그리고 자비로운 아버지. 이 세 사람은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메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전하는 메세지를 하나 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부르는, 잃어버린 작은 아들. 자기 몫의 아버지 유산을 미리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여기서 작은 아들이 떠났던 그 ‘먼 고장’이 실제로 어디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멀리 떨어진 외국이나 이방인들의 지역일 수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마음의 상태나 삶의 방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작은 아들처럼 멀리 떠나 살기도 하죠. 예를 들어, 교회나 신앙의 삶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혹은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기도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맘대로 만 살려고 고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공동체나, 아니면,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단절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떠난 ‘먼 고장’은 이렇게 단절되고 멀리 떨어져 나간 마음의 상태나 삶의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먼 고장’에서 온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고생 고생하다가, 굶어 죽을 만 하니까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회개의 순간이고, 이 순간을 기점으로 이 작은 아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 회개의 순간이 은총의 순간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하늘에서 은총이 가득히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삽니다. 그런데도, 잘못을 하고도 잘못한 줄 모르거나,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이 사순시기는 바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기있게 고백하고 회개의 은총을 청하는 시기입니다. 작은 아들의 고백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자비롭고 용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작은 아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베풉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오직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할 뿐, 과거의 행적도 미래의 비전도 묻지 않으십니다. 아무 조건없이 사랑하는 거죠. 지금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감동입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죠.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로 이 작은 아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 오게 됩니다. 이것이 ‘화해’입니다.

 서로의 잘못으로 갈라져 있었던 마음들을 하나로 다시 묶어서, 원래의 모습대로, 한 가족, 한 공동체로 다시 묶어 주는 것. 이것이 ‘화해’입니다. 죄 때문에 갈라졌던 인간과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화해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서로 갈라졌던 사람들이 다시 화해하고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에, 큰 아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복음서는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고,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갖은 불평을 다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고, 쉽게 용서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죄인이 쉽게 용서를 받으면, 이 큰 아들처럼 괜히 화가 납니다. 나도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용서를 받고, 은총을 받았으니까, 우리 인간들끼리도 서로 잘못을 용서해 주고 자비롭게 대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큰 아들처럼, 잘못한 사람들은 합당한 고통과 벌을 받아야 하고, 쉽게 용서해주면 안된다고 불만을 갖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단죄하려 합니다.

 당시에 유다인들, 특히 바리사이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지은 죄에 맞는 고통도 받고, 괴로움도 당하고, 벌도 받고, 그래야 공평한 것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여겼었지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받아들이신다는 이야기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큰 아들’처럼 화를 냅니다.

 이 ‘큰 아들’은 당시의 유다인들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은 죄 많고,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의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모습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죠.

 하느님은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자비롭게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자비롭고 너그럽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행복의 길입니다.